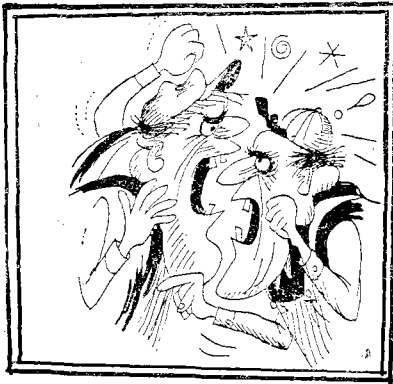


기업양제의 인력관리



김 영 옥
 <한국가금협회 편집부장>

『사장이 나만 믿고 있어서 공휴일이라도 놀러 나갈 수가 없어』 잘되는 양계장이다.

『죽도록 일해 봤자 봉급이 올라가나 누가 알아주길 하나』 곧 문을 닫아야 할 양계장이다.

리에 중점을 두고 집필하기로 하였다.

간부란? — 전무 · 부장 · 과장 · 기사

간부란 도대체 무엇일까? 간부란 양계장 혹은 사료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작용을 해야 하는 사람들일까? 어느 사전을 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간부란 단체의 수뇌부가 되는 자, 혹은 군대의 장교 · 하사관 등

그러면 기업에 있어서 간부란 어떤 위치나 어떤 위로는 경영자가 있고 아래로는 종업원의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업무에 따르는 간부를 분류한다면 간부란 『한사람 이상의 부하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타인을 통하여 실현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간부의 하는 일은 무엇인가. 만일 당신이 한사람 이상의 부하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일상생활 중에 무슨 일을 하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꼬집어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전부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즉 현장(양계장 혹은 사료 공장)을 돌아 본다, 도장을 누른다, 사람과 면담한다, 지시한다, 지시를 받는다, 회의에 참석한다 숫자를 검토한다, 외부에 판매 교섭을 한다. 등에서부터 경영자의 신세 타령을 듣는다, 부하들의 중매를 듣다 등에 이르기까지 실로 잡다한 일들의 연속이어서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십니까?』라고 물으면 그냥 웃을 수 밖에 없을 만큼 대답이 궁할 것이

양계업도 기업이다.

최근에 몇몇 양계장을 방문하는 중에 경영자들로부터 이러한 얘기를 듣는 일이 잦아졌다. 즉 『4만수의 닭을 관리하기는 쉬운데 20여명의 종업원은 항상 끊임없이 말썽을 피운다. 특히 대학을 갓 졸업한 기사급들은 취급하기가 아주 곤란하다』라는 얘기가. 또 그런가 하면 기사급들로부터는 이러한 얘기가 들린다. 즉 『기사? — 무슨 기사야. 노무자 십장이지. 언제나 쥐꼬리만한 자기의 경험만 믿고 새로운 학문을 얘기하는 나의 얘기는 들을려고 하지 않을 뿐이다』라는 얘기가. 다들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다.

우리 나라에 양계업이 기업의 규모로 발전된 것은 최근 4~5년 사이의 일이다. 그것은 다만 하나의 외견상의 규모에 있어서만 그렇다는 것이다. 기업이 마땅히 가져야 할 체제 · 전통 · 조직 등에 있어서는 이제부터라고 해도 좋을만큼 아직 체제도 잡혀 있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도중에서 이러한 얘기들이 마땅히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즉 사장은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기사의 일감을 빼앗아 거기에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면 기사는 할 일이 없어 결국 종업원의 일을 맡아야만 되는 것이다. 본 고(稿)에서는 이제 새로이 출발하는 과도기에 있는 양계업 · 사료업 · 약품업체(큰 업체에서는 짜임새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들의 중견 간부들의 인력관

다. 간부의 직책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그러나 얼핏 보아 이상해 보이는 간부의 업무가 잘되어 나가지 않으면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대기업도 간단하게 파탄을 겪게 되고 반대로 이것이 잘되어 나가면 아무리 빈약한 업체라도 착실한 발전을 계속하여 끝내는 커진다. 그러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간부는 어떠한 타입들이 있을까

턴넛간부가 되지 말라

모든 간부의 첫째 조건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떤 간부이건 담당 분야를 가지고 있다. 총계장 담당, 부화장 담당, 사료 공장 담당, 판매 담당 등 각각 자기의 분야가 있다. 우선 그 분야에 있어서 그 사업체에서는 물론이지만 같은 종류의 라이벌이 되는 업체의 분야에서 까지도 자기가 가장 사정에 밝아야 한다. 내부의 인적 상황, 외부의 움직임, 앞으로의 전망 등에 이르기 까지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과 가지고 있어야 되며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사장이 먼저 라이벌 회사의 사업확장을 알고 와서 『이번 X양계장에는 수입종 ○○○수를 도입했는데 전망이 괜찮겠어』 하면 『아 언제 들어 왔습니까?』 이런 식이 되면 곤란하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부장』이면서도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 상사에게 들은 얘기를 그대로 부하에게 전달하고 부하의 얘기를 그대로 상사에게 전달하는 턱넛과 같은 간부이다. 『산란율을 5% 올려야 하겠어』라는 상사의 얘기를 그대로 부하들에게 전하면 『어떻게 5%씩이나 올려요?』하는 불평이 먼저 나올 것이다.

『봉급을 올려 주셔야 하겠습니다』하는 부하의 얘기를 그대로 전하던 『사업은 자꾸 줄어 드는데 인건비는 더 지출할 수 없어』라는 얘기를 대담으로 받을 뿐이다. 간부는 어느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찾아내고 대책을 세워 상사나 부하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고 따라올 수 있을 만큼 추진력과 배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간부란 상하의 관계에서 의사만 전달해 주는 심부름꾼이나 우편배달부는 아니다. 최소한 턱넛간

부는 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어떤 간부일까

○ 나는 상사나 부하의 의견을 그대로 위 아래에 전달해 주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 꼭 그렇지는 않지만 상사의 불만스러운 지시에는 부하들을 무마하기 위하여 전달할 후 부하들과 같이 상사를 욕하며 부하의 불평을 상사에게 전달한 후 상사와 같이 부하들의 힘을 들추어 내어 얘기한다.

○ 무슨 지시나 권의를 받으면 꼼꼼이 생각하고 충분한 대책을 세워 자기 나름대로 해결해 나간다. 상사나 부하를 100%는 못되지만 대부분 만족시켜 나간다

간부는 잘 난 사람은 아니다

간부로서의 두번째 조건은 간부는 자기의 생각을 「타인을 통하여」 실현하는 사람인 것이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를 통하여」 실현하는 사람은 연구원이나, 설계가, 그리고 의사나 미술가 등의 특수 분야인 사람들이다. 간부는 타인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본직이며 자기의 힘을 쓰는 것이 본직은 아니다. 물론 자기의 힘을 쓸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타인의 힘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책임을 지는 분야를 담당하여 자기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야 하는 것이다. 부하의 일을 돕는 수도 있다. 다른 부문과 교섭하는 일도 있다.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부하의 일에서 장애를 제거하는 일도 있다. 크게 말해서 간부는 부하가 못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야 한다. 간부는 꼭 부하만을 쓰는 것은 아니다. 상사를 움직여 힘을 빌리고 동료들을 움직여 협조를 구하고 외부 사람을 움직여 업체의 도움을 얻는다. 요컨대 간부란 모든 사람을 움직여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체를 움직여 나가는 사람이다. 간부가 잘난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런 역할을 받았을 뿐이다. 자기의 역할을 받았으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어떤 간부일까?

□ 연재 · 기업양계의 인력관리

○ 나는 내가 좋아하고 가능한 일만 맡아서 처리하고 있다.

○ 그렇지 않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맡았을 때는 겁이 나고 용기가 없어진다.

○ 나는 무슨 일을 맡았을 때나 차분히 대책을 세우고 저돌적으로 달려들어서 꼭 성취시키고야 만다.

간부의 평가—무엇인가를 이루어 놓는 사람

간부가 제 아무리 지식이 풍부하고 말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간부로서는 아무 것도 아니다. 문제는 그 직책에서 무엇을 해 놓았는가 문제인 것이다. 이루어 놓은 것은 그 사업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다. 그 간부가 맡고 나서 산란율이 높아졌다, 부화율이 높아졌다, 적은 인원으로 잘 운영해 나갔다, 판매량이 늘었다. 내부의 탈선이 많은 곳이었든데 조용하고 항상 명랑하다. 등등 하여튼 이전과 다른 좋은 상태로 발전을 하였으면 그 간부는 훌륭하고 능력이 있는 간부인 것이다. 간부는 전임자에게서 업무를 인계 받아 무엇인가를 이룩하고 후임자에게 유익한 무엇인가를 남겨 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어떤 간부는 알면서도 못하는 간부가 있다. 질병이 돌아서 닭들이 매일 쓸어져 나가는데 ○ ○ 약을 쓰면 될 줄 알면서도 사장이 자꾸 돈드는 곳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혹은 귀찮아서, 혹은 만일 약을 쓴 후에도 그대로 계속된다면 자기의 체면은 땅에 떨어질 것이므로 등의 이유를 붙여서 「꼭 우리만 죽나. 대한민국 전체가 다 질병인데」하고 그냥 앉아만 있는 타입이 있다. 이러한 간부는 곤란하다. 간부는 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꼭 자기의 예상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직책에 앉아있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것이다. 자기의 예상이 맞든 틀리든 대담하게 한번 시도해 보고 그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간부에게 실행력이 없는 큰 원인의 하나는 너무 생각만 하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별로 학자적인 것도 아니고 간부

로서의 적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일할 의욕도 충분하다. 그러면서도 과감하게 실천 못하는 사람이 많다. 전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모든 간부에게 이런 측면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타입은 간부로서는 불행한 타입이다. 원래 간부는 수지 안 맞는 일을 하는 것이다. 책임은 무겁고 요구되는 것은 많고 급료라고 해야 대단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그것에 대한 뱃가가 있기 때문이다. 즉 달성감이 그것이다. 간부로서 유일하고 제일 큰 기쁨은 달성감이다. 드디어 타회사를 물리치고 판매량이 최고를 이루었다든지 부화율이 몇년 사이에 최고를 이루었다든지 조건이 나빴는데도 산란율이 높아졌다든지, 역대의 간부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자기가 이룩해 놓았다든지 등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그 결과를 자기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간부된 보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있으니까 그 적은 급료에 일의 잠동자니를 열심히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달성감이라는 것은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영원히 맛볼 수 없는 것이다. 무조건 한발 내딛고 손을 내는 것이 이것을 맛보는 선결조건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한눈 팔지 않고 파고 든다면 노력량에 알맞는 만족감을 반드시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만 하고서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의 원인은 이 재미를 맛보지 못한 데 있는 것이다. 새로 간부가 되면 일의 중압감에 고민하는 사람이 많으며 간부로서 경험을 쌓음에 따라 달성의 쾌감을 체험하고 이것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성장한다. 간부로서 일의 참된 맛을 모르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리고 일의 참된 맛을 알기 위하여서는 무조건 대담하게 뛰어 들어야만 하는 것이다.

○ 나는 어떤 간부일까.

○ 나는 아직 일을 달성한 후에 달성감을 맛본 일이 없다.

○ 그럭저럭 마지 못해 끌려 다니며 일을 끝내기는 하지만 정말 뛰어 들어 결판을 내어본 일은 없다.

○ 일 그 자체를 사랑하고 싶다. 더구나 한가지 일을 끝내고 담배라도 한대 피워 물면 그 달성감은 감

히 어디다 비할 수 없을 만큼 좋다. 나는 충분히 달성감을 맛보고 있다.

높아지면 잃어 버리지 않으려는 간부

간부가 계장·과장·부장으로 승진하는 동안에 일의 위험도를 무릅쓰고 달려들던 정신자세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짊을 때는 실패하더라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흠집은 적은 것이다. 그러나 점차 승진하는 동안에 책임도 무거워지고 업적을 자기 단위로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입장에 닥아오면 지금까지 힘차게 뛰고 위험을 무릅쓰고 분투하던 사람이 고양이처럼 되어 만사에 신중을 기한 나머지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경우다. 물론 높아지면서 책임도 많아지게 되고 따라서 서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라이벌도 생기고 조그만 실수도 곧잘 고자질하는 반대파도 생기게 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가 아직 쌓아놓은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간부로서의 생명은 종점에 가까워진 것이다. 간부가 초조하게 된다면 그 간부는 마지막이다.

간부가 높아지면 책임도 많아지고 실패했을 때의 영향을 미치는 범위도 넓어진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는데도 갈 바를 찾지 못했을 때의 결정 요인은 업체 내외부의 시기에 있다. 시기가 좋다고 생각되면 대담하게 착수하여야 되며, 시기가 나쁘면 시기의 조성에 힘을 쓰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때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이 최선책일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의 성패는 기대한 대로 되기는 어렵다. 역시 최종적인 마음의 준비로서는 실패 역시 나쁜 것이 아니라 심경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정말 큰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큰 실패가 복귀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쓴맛 단맛을 다 본 사람의 결론은 바로 그것이다. 실패 역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실패한 후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 나는 어떤 간부일까?

○ 나는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모든 것을 잃지 않으려고 신중한 나머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단지 지시된 것을 전달하는 텃밭 간부가 되어 있다.

○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역시 신중을 기하고 위험도가 30%만 되면 그 일은 시작하지 않는다.

○ 나는 지위가 높아져 있어도 항상 창의력을 발휘하여 위험도가 50% 정도의 것도 젊은 사람과 같은 정열로 이겨 나가서 끝내는 해치우고 만다.

고려 케이지 제작소

※ 부화업 부로일라에 뜻을 두신 분에 상담환영

◎부화기

큐커리형, 치즈마스타형, 마스타혼형, 마스타리프스형 등 각종 자동부화기를 주문 제작하고 있어 환영받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품질위주로 주문제작에 임하고 있으며 부화 기술도 지도해 드립니다. 교통이 불편한 전국 각지에선 서신연락이 있으시면 현장 답사하여 주문에 응하겠습니다. (2만개용, 1만5천개용, 1만2천개용, 1만개용, 8천개용, 6천개용, 5, 4, 3, 2천개용)

◎케이지

각종 케이지(초생추용, 중추용, 성재용, 부로일라용)를 주문제작하여 시설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나 서신연락이 있으시면 현장 답사후 주문에 응하겠습니다. 특히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을 보증 합니다.

급이기, 급수기도 주문 앞선해 드립니다.

고려부화기 · 케이지제작소 대표 이삼웅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기동146-1

저점 : 서울특별시마포구노고산동20-5 TEL. 32-8559

